

신규 상장은 30% 급증, 수익률은 -12.9%... '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' 지속

주요 원화 거래소 상장 현황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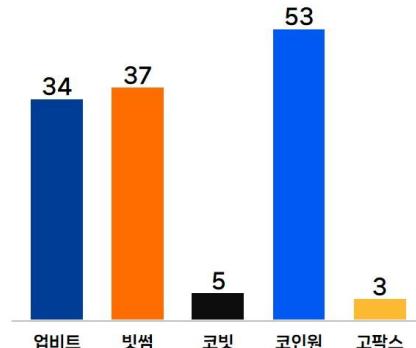
■ 3분기 가상자산 상장 현황 : 신규 상장 확대와 경쟁 심화

○ 3분기 거래소의 적극적인 상장, 2분기 대비 30% 상승

- 국내 주요 거래소 5곳에서 총 132 건의 신규 상장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는 2분기 대비 30% 상승한 수치입니다.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세에 따라 업비트, 빗썸, 코인원을 주축으로 신규 상장이 늘었습니다.
- ▲업비트 34 건, ▲빗썸 37 건, ▲코빗 5 건, ▲코인원 53 건, ▲고팍스 3 건입니다. 업비트와 빗썸, 코인원 거래소가 신규 코인을 상장을 주도했습니다.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코빗과 자금 문제로 경영상 제약이 있었던 고팍스는 기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.

[국내 거래소 상장 현황 - 25년 3분기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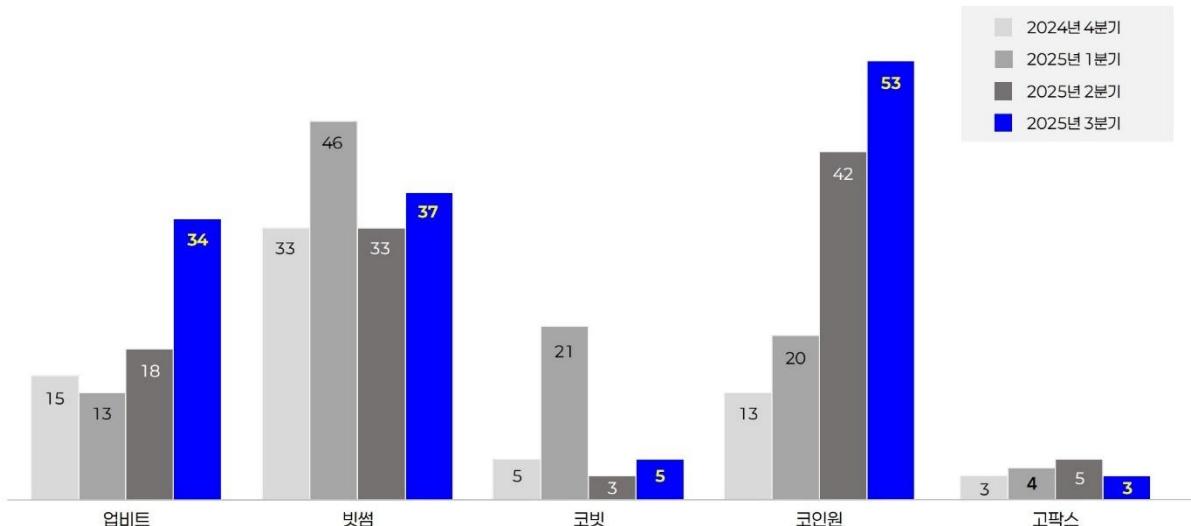
거래소	신규상장	상장폐지
업비트(UPbit)	34	3
빗썸(Bithumb)	37	11
코빗(Korbit)	5	0
코인원(Coinone)	53	12
고팍스(GOPAX)	3	3
합계	132	29



- 반면, 총 29 건의 코인에 대한 상장 폐지가 이루어졌습니다. ▲업비트 3 건, ▲빗썸 11 건 ▲코인원 12 건, ▲고팍스 3 건의 상장 폐지가 단행되었습니다.
- 특히, 편디에이아이(PUNDIAI)와 퀴즈톡(QTCON)은 보안사고 후 공지의무 소홀, 부적절한 후속조치로 인해 모든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습니다.

○ 점유율 경쟁에 따른 신규 상장 확대

[분기별 신규 상장 추이 (24년4분기 ~ 25년3분기)]



- 지난 1년간의 신규 상장 추이를 살펴보면, 거래소 간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빗썸은 2025년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수의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업비트는 이에 대응해 3분기부터 신규 상장을 대폭 늘려 반격에 나섰습니다.
- 코인원은 2024년 4분기부터 신규 상장을 꾸준히 높였습니다. 2025년 3분기에는 전 거래소를 통틀어 가장 많은 53건의 종목을 상장하였습니다.
- 코빗은 25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4배 이상 상장 건수를 늘렸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다시 보수적인 정책으로 회귀하였고, 고팍스는 경영 상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인 상장 정책을 유지했습니다.

■ 거래소별 상장 전략 분석 : 9월에 집중된 상장 경쟁

[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점유율 현황 - 25년 10월 20일 기준]



※ 자료 : 코인게코,

○ 업비트 : 두나무-네이버 파이낸셜 합병을 앞둔 점유율 극대화 전략

- 지난 9월 25일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교환을 통한 인수합병 추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를 전후해 업비트는 9월 한달 간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.
- 적극적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9월 4일부터 LCK 스폰서로 참여하였고, 9월 12일 현존 최고의 프로게이머인 ‘페이커’ 선수를 모델로 한 브랜드 영상 공개를 통해 젊은 투자층을 겨냥한 마케팅과 함께 신규 상장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.
- 7월 7건, 8월 6건이었던 신규 상장이 9월 21건으로 급증했습니다. 이는 합병 전 시장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.

○ 빗썸 : 월드코인(WLD) 효과로 반짝 상승, IPO 여부는 아직

- 빗썸은 9월 한달 간 22건의 신규 상장을 추진하며 점유율 확대를 시도했습니다. 특히, 월드코인(WLD)의 가격 급등으로 일시적으로 점유율 46%를 기록했으나, 업비트의 상장 대응으로 빗썸의 점유율은 다시 31%로 하락해 단기적인 효과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.
- IPO를 추진 중인 빗썸의 3분기 점유율 확대 성과는 제한적이었으며, 다음 분기에도 IPO를 위한 추가적 마케팅과 상장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○ 코인원 : 상장 확대에도 불구하고, 점유율 정체

- 2025년 3분기 53건으로 최다 상장하였지만 시장 점유율은 2%대에 머물러 있습니다. 10월 20일부터 신규 투자자 유입을 위한 최대 6개월간 수수료 무료

이벤트를 발표했으나 업비트, 빗썸의 공격적 행보 및 고팍스의 재도약 가능성으로 단순 확장 전략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.

○ 고팍스 : 바이낸스의 대주주 지위 승인, 새로운 전환점 모색

- 2022년 GoFi 사태 위기로 큰 타격을 맞은 고팍스는 2023년 바이낸스가 67%의 지분 인수 후에도 임원 변경 신고 수리가 지연되어 경영상 제약이 지속되었습니다.
- 분기별 상장은 3~5 건에 불과했으나, 지난 10월 16일 바이낸스의 대주주 지위 인정으로 4분기부터 변화가 예상됩니다. 바이낸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면, 시장 재편 가능성이 높습니다.

상장 효과 분석 : 낮은 수익률, 높은 투자 리스크

■ 상승장 속 -12.9%의 평균 수익률

- 3분기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,470조 원에서 5,500조 원으로 약 23% 상승했습니다. ▲비트코인(BTC) 15.6%, ▲이더리움(ETH) 79.5%, ▲솔라나(SOL) 40.2%, ▲리플(XRP) 21% 상승으로 시장 전반이 호조를 보였습니다.
※ 최종가는 25년 10월 15일 데이터를 반영

[3분기 신규상장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]

	상장가 대비 현재가 비율
비트코인 (BTC)	15.6 %
이더리움 (ETH)	79.5 %
솔라나 (SOL)	40.2 %
엑스알피 (리플, XRP)	21.0 %
신규 상장 가상자산 평균	-12.9 %

※ 최종가 기준일 : 2025년 10월 15일 (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업비트 참조)

- 3분기 가격 상승 원인은 ①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및 규제의 정비에 대한 기대감, ② 9월 미국의 금리인하 및 기대심리, ③ 국내외 기관의 관심 및 자금 유입 증가

등이 있습니다. 시장의 호재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, 특히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알트코인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.

[분기별 신규 상장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 추이]

	1분기	2분기	3분기
비트코인(BTC)	-14.6 %	18.3 %	15.6 %
이더리움(ETH)	-52.6 %	24.1 %	79.5 %
신규 상장 가상자산 평균	-28.2 %	-27.8 %	-12.9 %

- 반면, 신규 상장 가상자산은 금년 세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3 분기에는 -12.9%의 평균 수익률에 그쳤습니다.
- 총 132 건의 신규 가상자산 중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겨준 신규 가상자산은 26 건으로 19.6%에 불과합니다. 최고 수익률은 코인원에 상장된 쁘(SOON)으로 상장가 대비 496.1%, 최저 수익률은 고팍스에 상장된 파우터(FTR)로 -96.59%였습니다.
- 상장 직후 일시적 가격 급등 현상(상장빔)은 56.8%(75 건)의 절반이 넘는 종목에서 나타났으며, 장기적인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해 3 분기 연속 '하이 리스크, 로우 리턴'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
■ 투자자 성향의 변화와 상장 전략의 전환

- 가상자산 시장이 관련 규제 및 정책의 수립, 글로벌 기관의 투자 지속 등 유의미하고 안정적인 자산 시장으로 자리 잡는 과정임에 따라 투자자의 성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.
- 투자자들은 더 이상 신규 상장을 통한 '고위험, 고수익'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으로의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거래소들도 고위험군 종목을 상장하기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종목 중심의 상장 전략으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.
- 따라서 신규 상장은 단기 수익 수단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략의 투자 선택지 다양화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

■ 안전성 분석 : 거래소별 상장 품질 차이

○ 업비트와 빗썸 : 안정적 종목 위주의 상장

- 3 분기 업비트에서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 34 종 모두 바이낸스 또는 코인베이스, 국내 원화 거래소에 이미 상장되어 있어 유동성 확보에 안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
- 빗썸 역시 37 종 중 1 종(캠프 네트워크, CAMP)을 제외한 36 종은 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종목을 상장해, 리스크가 높은 종목을 상장으로 인한 ‘위험’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.
- 두 거래소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투자자에게 안전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상장 전략을 구사했습니다.

○ 코인원 : 차별화를 위한 공격적 상장

- 코인원에 신규 상장된 53 건 중 13 종(24.5%)은 바이낸스, 코인베이스 및 국내 원화마켓에 상장되지 않아 안전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
- 이는 타 거래소에 없는 종목을 상장시켜 ‘고위험, 고수익’ 성향을 지닌 투자자들의 유입을 노렸으나, 투자 성향의 변화를 고려할 때, 점유율 확장에 효과적인지 미지수입니다.

[안정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상자산 (단독상장)]

거래소	#	코인명	코인기호	비고
빗썸	1	Camp Network (캠프 네트워크)	CAMP	-
코빗	1	Hyperliquid (하이퍼리퀴드)	HYPE	
코인원	1	Fragmetric (프래그메트릭)	FRAC	-
	2	XDC Network (엑스디씨 네트워크)	XDC	
	3	Yala (알라)	YALA	
	4	MilkyWay (밀키웨이)	MILK	
	5	Vine Coin (바인 코인)	VINE	
	6	MetaCene (메타센)	MAK	
	7	MYX Finance (엠와이엑스 피아낸스)	MYX	
	8	OVERTAKE (오버테이크)	TAKE	
	9	Sidekick (사이드킥)	K	
	10	Portal to Bitcoin (포털투비트코인)	PTB	
	11	EGL1 (이글스랜딩)	ECL1	
	12	Loaded Lions (로디드라이언즈)	LION	
	13	Saros (사로스)	SAROS	
고팍스	1	TikTrix (틱트릭스)	TRIX	고팍스에만 상장(글로벌 거래소 X)
	2	Fautor (파우터)	FTR	

결론 : 신규 상장의 의미 변화

- 3 분기 국내 거래소 간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규 상장이 늘어났지만 - 12.9%로 투자 성과는 제한적이었으며, 신규 상장 투자를 통한 단기 고수익 기대 역시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.
- 지속적인 ‘하이 리스크, 로우 리턴’ 패턴으로 투자자도 안정성과 지속성 중심의 투자 성향이 현저해지고 있으며, 거래소 또한 변화에 맞춰 포트폴리오 다양화의 상장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
- 장기적 수익률을 고려한 투자성향의 변화로 향후 국내 거래소의 신규 상장 전략은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망 종목에 대한 거래지원으로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, 시장 다양성 제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